

글자 만들기 책 만들기

훈민정음의 의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글자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그 글자의 창제 동기와 방법,

사용법 등을 설명한 책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서적을 말하는 훈민정음과 구분하기 위해

글자로서의 훈민정음은 한글로 표기하였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 만난 한국인 친구가 한 외국인에게 “너희 나라 글자는 누가 만들었나?”하고 묻고, 그 외국인이 어리둥절해 하자 자기나라 글자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고 무시하는 모습을 본적이 있다. 어려서부터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들어온 터라 글자를 특정한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글은 만든 사람과 생일, 만든 목적과 원리가 명확한 글자이며, 그 목적을 완벽에 가깝게 실현시킨 결과물이다. 또 훈민정음이라는 책에 적용된 타이포그래피는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한 디자인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종류와 구성

훈민정음의 종류와 반포용 훈민정음

2012년 1월 현재까지 전해지는 훈민정음으로는 「세종실록 훈민정음(世宗實錄 訓民正音)」 「세종어제 훈민정음(世宗御製 訓民正音)」 고려대학교 소장본, 간송미술관소장본, 서강대학교 소장본 등 다섯 가지가 있다.

「세종실록 훈민정음」은 태백산본과 정족산본이 있다. 세종실록(권 113) 세종 28년 9월 ‘시월(是月)’ 줄가리에 훈민정음 본문이 적히고 그 밑에 ‘정인지 서(鄭麟趾 序)’가 실려 있다. 「세종실록 훈민정음」은 원본을 그대로 베껴 쓴 필사본에 해당되어 내용확인을 위한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으나, 적용서체에 담긴 창제철학이나 서체선택의 적절성과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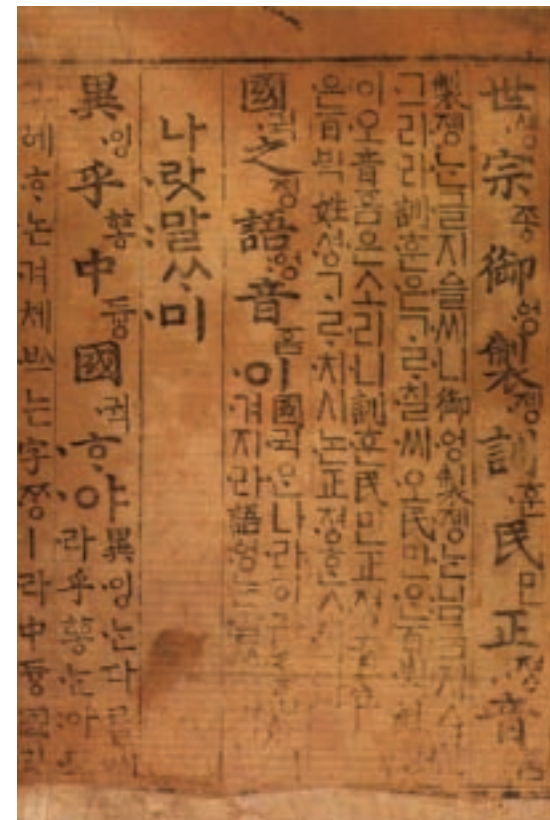
타이포그래피(typography) 능력을 이야기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훈민정음언해」 또는 「훈민정음언해본」이라고도 불린다. 이는 서강대학교 소장본과 동일한 것으로, 월인석보 첫째권의 서두에 기록되어 있다. 일부 서적에서는 이 책의 발행 시기를 세종 말에서 세조 초기라고 기록하고 있으나, 명칭에 붙은 ‘세종어제’라는 표현은 이 책이 훈민정음 반포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세종대왕의 지휘 하에 제작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은 원래 박승빈이 소장하고 있던 단행본이다. 종이의 질로 보아 원본에 가까운 느낌을 주지만, 국어학자 최현배는 원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에 사용된 글자의 맞춤법이 창제 당시의 것과 다르며, 서체가 반포 당시의 것보다는 세조 이후의 것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소장본에는 치음자(齒音字)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세종실록훈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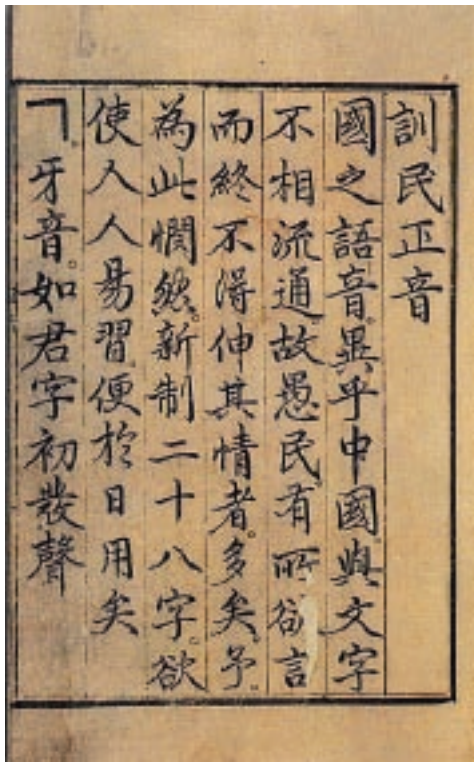


○ **세종실록 훈민정음 정족산본**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세종실록에 기록된 훈민정음이다. 세종실록 훈민정음은 두가지가 있는데, 다른 하나는 태백산본으로 정부기록보존소에서 소장하고 있다.



○ **세종어제 훈민정음**
훈민정음언해 또는 언해본이라고도 불린다. 한자로 작성된 훈민정음에서 서(序)와 예(例義)를 한글로 옮긴책이다. 세조 이후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

○ **타이포그래피**
타이포그래피는 활자 디자인 또는 활자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의 타이포그래피는 활자뿐만 아닌 모든 형태의 글자를 다룬다. 훈민정음은 활자를 이용한 인쇄물이 아닌 목판 인쇄물이지만, 현대적 의미의 타이포그래피에는 해당된다.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현존하는 훈민정음 중
유일하게 반포용으로
판단되는 판본이다.



훈민정음 상주본
2008년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정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규정은 신숙주가 '사성통고법례'에서 언급한 내용과 상충된다.

간송미술관이 소장한 「훈민정음」을 원본으로 보는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 간송미술관 소장본은 「세종실록훈민정음」의 것과 내용이 일치하며 '정인지 서'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부합한다.

이밖에도 국보 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상주본이 있는데 「훈민정음」 원본으로 판단되는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목판으로 인쇄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상주본은 경상북도 안동의 광흥사 불상 내부에 있던 것으로 2008년 발견되었다. 하지만 상주본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1999년 불상 내부에 있던 훈민정음을 훔쳐 골동품 상에게 팔았고, 다른 골동품 거래 과정에서 도난을 당해,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훈민정음의 내용구성

「훈민정음」은 크게 예의편(例義篇)과 해례편(解例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의편에는 창제목적에 담은 서문과 새로 만든 닿자와 활자에 대해 한자음(漢字音)을 이용해 발음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國地語音, 異乎中國(나라말 쓰미등국어달아)”로 시작되는 부분이 서문에 해당된다.

해례편은 제자해(制字解), 초성해(初聲解), 중성해(中聲解), 종성해(終聲解), 합자해(合字解), 용자례(用字例)의 순으로 기술되어 있고 책의 끝에는 정인지의 서문이 실려 있다.

제자해는 음양오행의 원리로 한글을 창제하였다고 언급을 한 후, “初聲凡十七字. 牙音ㄱ, 象舌根閉喉之形. 舌音ㄴ, 象舌附上腭之形. 脣音ㅁ, 象口形. 齒音ㅂ, 象齒形. 喉音ㅇ, 象喉形.”라고 기술하여 아음(牙音), 설음(舌音), 순음(脣音), 치음(齒音), 후음(喉音)을 대표하는 ㄱ, ㄴ, ㅁ, ㅂ, ㅇ의 형태가 나오게 된 원리를 설명하고, 각각의 대표자음에 획을 더할수록 거센소리를 표현하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자음의 5가지 분류가 상징하는 오행, 계절, 음악, 방위를 소개하고 있다. 자음에 대한 설명 이후 모음의 제자원리로 이어지는데, ㆍ, ㅡ, ㅣ가 각각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며, 나머지 8개의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이 어우러짐과 음양의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각 모음이 상징하는 성수(成數)와 오행, 방위, 장기(臟器)에 대해 언급하였다. 모음에 대한 설명 이후에는 음절을 이루는 각 쪽자의 어울림에 대해 기술하였는데, 초성은 하늘, 중성은 땅, 종성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하고 이들의

조화를 음양오행의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제자해에 이어지는 초성해와 중성해, 종성해는 각각의 쓰임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자음의 경우 별도의 겹자음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는 반면, 중성해에서 겹모음에 대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다. ‘합자해’에서는 낱글자를 만들 때 초성과 중성, 종성의 위치관계를 설명하고, 겹자음의 쓰임새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어서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을 비롯한 중국어의 표기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용자례에서는 90단어의 예를 들어 그 표기법을 보였다.

‘정인지 서’는 정인지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민정음이 1443년 창제되어 1445년에 반포되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글자 만들기 | 위대한 글자 디자이너

한글 창제의 철학 | 백성을 사랑한 세종대왕의 도전

세종대왕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세계적인 위인이라 평가 받는 사람들의 업적 이면에는 자기 자신의 이권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한글은 백성을 사랑하는 세종대왕의 순수한 마음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완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의 탄생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443년 음력 12월, 세종대왕이 몰래 숨어서 글자를 완성했다. 과거에는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하여 한글을 완성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으나, 현재는 세종대왕 혼자, 그것도 몰래 숨어서 한글 28자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만리의 상소는 한글 창제에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강력한 증거다. 최만리는 집현전 부제학이었다. 집현전 학사들이 한글 창제에 참여하였다면, 사실상 집현전의 수장이었던 그가 모를 리가 없었고, 창제과정에서는 아무 말이 없다가 완성이 된 후에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결국 한글 창제는 세종대왕 혼자 몰래 만들었고, 이를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반포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동안 사대부와 유생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1446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한글에 담긴 과학 |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한 글자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학적인 글자라는 근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 글자의 형태가(정확히 말하자면 자음의 형태)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지만, 이보다는 각 글자들 간의 형태적 유사성과 음소문자인 동시에 음절문자라는 특징이야말로 한글의 과학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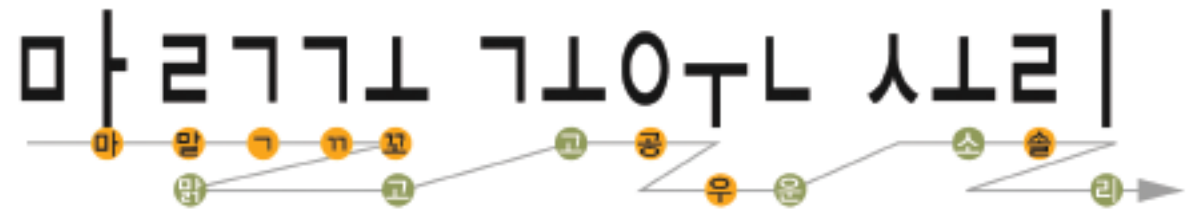
물론 자음의 형태는 발음할 때 사용되는 어금니(牙), 혀(舌), 입술(脣), 이(齒), 목구멍(喉)과 같은 발음기관의 형태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단지 글자를 만든 원리일 뿐, 그로 인한 장점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비슷한 발음이 나는 글자들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과학성을 이야기하는 핵심적 사항이다.

한글은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써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사대부나 양반계급과 같은 특권층이 아니다. 당시의 글자인 한자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현대의 한국인이 말은 한국어로 하고 글은 영어 단어를 이용해 기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였다. 순수한 한국어를 그대로 한자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했고, 말하는 순서도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를 익히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특권층이 아니면 한자사용이 불가능했다. 결국 한글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글자를 익히는데 수월해야하며, 백성들이 사용하는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자음과 발음기관의 형태적 유사성은 장점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비슷한 모양의 글자가 비슷한 발음을 표현한다는 점은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ㄱ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ㅋ은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ㅅ과 비슷한 발음이 나는 ㅆ 역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ㅋ, ㅌ, ㅍ 등과 같이 형태가 복잡할수록 거센소리가 난다. 모음도 예외가 아니다. ㅏ, ㅑ, ㅓ, ㅕ와 같은 세로획에 점을 가한 글자들은 입술을 벌려서 발음하고, ㅗ, ㅛ, ㅜ, ㅠ와 같이 가로획에 점을 가한 글자들은 입술을 오므려 발음하는 것과 같이 발음과 형태의 유사성은 모음에서도 유지된다.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갖는 글자들이 비슷한 발음을 표현함으로써 한글 자모를 완전히 익히지 못한 사람이라도 의미의 소통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고 글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음소문자이자 음절문자라는 점 역시 한글의 큰 장점이다. 음소문자인 영어의 경우 26자만 익히면 모든 단어의 표현이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음절표현의 한계가 있거나 음절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독서속도에 지장을 준다(영어의 경우 앞 음절의 종성음이 다음 음절의 초성음과 동일하면 표현이 불가능해진다). 반면, 음절문자는 음절의 구분이 명확해지지만, 표현 가능한 음절 수가 많을수록 글자 수가 많아지는 단점이 있다. 결국 배우기 쉬운 음절문자는 표현 가능한 음절의 수가 매우 적어지게 되고, 표현 가능한 음절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와 비례하여 글자를 익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런데 한글은 음소문자와 음절문자의 장점만 모아놓은 글자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글은 24개라는 적은 수의 자모를 이용해 11,172가지 음절 표현이 가능하다.

○ 한글이 라틴문자와 같은 음소문자의 특징만 가졌을 때의 독서과정, 음절의 구분이 불명확해져 단어의 인지가 어려워진다.



책 만들기 | 위대한 타이포그래퍼

반포용 훈민정음에 사용된 한글과 한자의 서체는 큰 차이를 보인다.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서체는 기하학적이었다. 이는 한글 창제 당시 유일한 필기도구였던 붓으로는 표현이 불가능한 형태였다. 반면 한자는 붓의 특성이 잘 나타난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훈민정음상 한글과 한자의 서체선택에 대해 김영기(1978)는 세종대왕이 주체성을 강조하고, 한문 숭상 풍조에 반발하며, 한글과 한자의 혼용 시 한글이 약하게 보이는 것을 막는 의도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한 김진평(1985)은 세종대왕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한글창제 의도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반포용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서체를 자궁심의 표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를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객관적, 논리적 근거에 의하기 보다는 표현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시각적 특성을 바탕으로 각 필자들의 주관적 소견을 밝히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훈민정음에 나타난 한글과 한자의 서체선택은 뛰어난 타이포그래피 감각을 지닌 인쇄공들의 고민의 결과로 판단한다. 창제초기의 한글서체와 관련한 주장들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훈민정음의 성격에 비추어 훈민정음상 한글서체의 결정을 위해 고려되었을 만한 요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훈민정음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생소한 글자인 한글을 한자를 이용해 소개하고, 그 사용법을 알려주는 해설서와 같은 용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글자와 설명의 대상이 되는 글자를 확연히 다르게 표기할 필요성이 생긴다. 설명을 위한 글자와 설명의 대상이 되는 글자에 유사한 서체를 적용할 경우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설명에 사용되는 글자는 평범한 서체를 사용하고, 설명의 대상이 되는 글자는 꾸밈이 거의 없는 두드러진 서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서체 선택 방법은 영어 교육 관련 서적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어 입문 서적에 사용되는 영문은 한글과 다르게 각이 지고 두드러지는 서체를 사용한다. 이러한 서체 선택은 입문서에서 자주 보이고, 고급 단계의 영어 교육 서적일수록 사례를 찾기 어려워진다. 이는 설명의 대상이 되는 생소한 글자에 장식적인 요소가 포함될 경우, 초보 학습자들은 그 장식 역시 글자를 이루는 구조의 한 요소로 판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설명의 대상이 되는 글자와 설명을 위한 글자를 시각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혼동의 우려를 극소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체적용 원칙은 한자를 이용해 한글을 설명한 훈민정음에서는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훈민정음은 독서의 흐름을 돕는 약물들 뿐만 아니라 띄어쓰기의 개념도 도입되기 전에 만들어진 책이다. 또한, 한자의 형태와 한글의 형태 중에는 비슷한 것들이 다수 존재하여 동일한 서체를 적용할 경우 내용의 이해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모음의 ‘ㅡ’는 한자의 한일(一)자와 동일하고, 자음의 ‘ㅅ’은 들입(入)자나 사람인(人)자와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뜻글자인 한자 속에 표기된 이러한 글자는 문장에 따라 한글을 한자로 오인하여 읽을 경우에도 문장 내용상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가능성이 높다. 한 예로, 훈민정음 제자해에 “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라는 표현이 있다. 이 표현은 모음 ‘ㅡ’에 대한 설명이지만, 양사(量詞)인 한일(一)자로 인식할 경우도 무리 없이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김성계는 한글창제기 한글서체는 쓰기보다는 읽기에 중심을 두고 디자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글이 일반 백성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일반 백성들은 문자를 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쓰기 능력보다는 읽기 능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그는 이러한 필요에 따라 장식적 요소가 없이 형태요소만 남김으로써 보다 쉽게 한글의 판독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판단했다.

물론 이후에 발간된 훈민정음에 사용된 한글서체는 점점 붓글씨의 영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부분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비해 치밀한 계산이 부족했다는 점과, 한글의 사용환경변화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추론한 바에 의하면, 훈민정음은 당시 타이포그래퍼들의 뛰어난 디자인 능력을 입증하는 소중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송의여자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 **구본영**